

#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 상담신고



**신고인**과 **피해자 보호**를 우선으로 익명 또는 가명으로  
상담·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**비밀 보장**됩니다.

## 상담 신고방법



**전화**

대표번호(국번없이, 수신자 부담)

**1670-2876**

전화상담 | 오전 9시 ~ 오후 6시



**온라인**

통합신고관리시스템 | [www.speth.or.kr](http://www.speth.or.kr)

이메일 | [with@k-sec.or.kr](mailto:with@k-sec.or.kr)



**카카오톡**

카카오톡채널 | 스포츠윤리센터



**우편 및 방문**

주소 | (04168)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2층, 7층  
(도화동, 자람빌딩)

방문상담예약 |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이용  
(방문상담 오전 9:30 ~ 오후 5:30)

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 상담·신고는 공정한  
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용기있는 행동이며 누구나  
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# 신고는 너에게 불이익이 아니라. 너를 지키는 첫 걸음이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상담할 수 있어

## 스포츠윤리센터

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78(도화동 자람빌딩)2층, 7층

Web [www.k-sec.or.kr](http://www.k-sec.or.kr)

Tel 1670-2876

## 지역사무소

[ 경기 ]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0, 스마트타워 1708, 1709호

[ 경남 ]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216, 태신드림시티 201호

[ 대전 ]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48, 매그놀리아 2307호

[ 광주 ]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, 우체국보험광주회관 2층

[ 강원 ]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, 시네시티타워 606호

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**KSPD**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시행합니다.  
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.

# 당신의 용기가 변화를 만듭니다!



## 스포츠윤리센터는

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2020년 8월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정 독립 법인(공공기관)입니다.

우리 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상담·신고 및 조사, 피해자 보호·지원, 스포츠윤리교육 등 체육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



### 상담·신고접수

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피해 상담·신고접수



### 사건조사

사건조사 및 징계조치 요구, 후속점검 및 사후 관리



### 피해자 보호·지원제도

법률지원, 심리상담, 의료지원 등 인권침해·비리 피해자 지원제도 운영



### 스포츠 윤리교육

체육계 인권 침해 및 비리 예방교육 운영



###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

체육인 대상 실태조사 및 스포츠윤리 정책 개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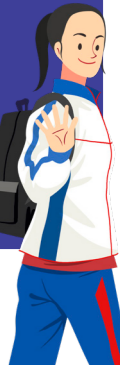
###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

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이력 관리 및 발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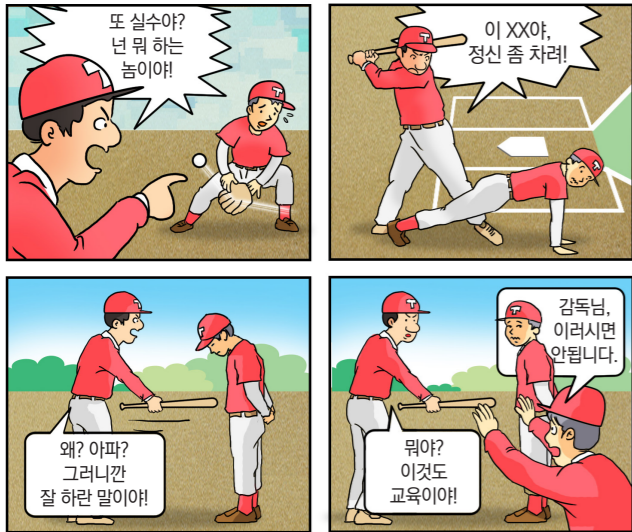


### 인권보호관 활동

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·조치 상황 등  
상시 점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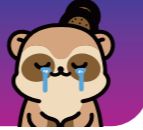


배트는 연습용이지,  
무기가 아니에요!



“ 어떠한 신체적 폭력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. 지도자의 손길은 선수의 성장을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. 폭력은 절대 교육이 될 수 없으며, 선수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. ”

말로 주는 상처가  
더 깊고 오래 남아요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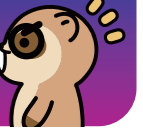
“ 지도를 가장한 언어폭력은 선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,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. 운동이 즐거워야 할 아이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말, 이제 멈춰야 합니다. 스포츠윤리센터는 학생 선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. ”

그건,  
농담이 아니에요!



“ 성희롱은 말뿐 아니라 문자, SNS, 채팅 등에도 해당됩니다.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, 그것은 명백한 성희롱입니다. 성적 농담, 원치 않는 신체 접촉! 절대 안됩니다. ”

선배의 말이 곧 법은  
아니에요!



“ 선후배 관계를 빌미로 한 사적 지시, 강압, 협박은 절대 전통이나 훈련 문화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. 선배의 사적 심부름 강요, 불이익을 암시하며 복종을 요구하는 행동은 모두 권력형 갑질이며,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. ”



혼자 고민하지 마세요. **스포츠윤리센터**와 상담하세요.

